

2020년 10월 22일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협력총괄과 과 장 주원철(044-201-2031), 사무관 서지예(2038) / 제공일: 10월 21일(총 5매)

걱정없이 농사짓고 안심하고 소비하는 나라

농식품부, 아세안+3 농림장관회의 참석

- 코로나19에 따른 아시아 지역 식량안보 강화 방안 논의 -

《 주 요 내 용 》

◆ 제20차 아세안+3 농림장관회의*(영상) 참석

* 아세안 10개국+한·중·일 3국 간 농림분야 협력 확대를 위해 '01년 출범하여 매년 장·차관급 인사가 참석하는 연례회의

○ (시간/장소) 2020.10.21.(수) 15:30~18:15/대회의실

* 당초 캄보디아에서 개최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영상회의로 변경

○ (주요내용) 코로나19가 역내 식량안보에 미칠 영향과 공동대응 방안 논의, 아세안+3 비상쌀비축제(APTERR)의 효과적인 활용을 위한 협력 의지 표명

□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이재욱 차관은 10월 21일(수) 제20차 아세안+3 농림장관회의(영상)에 참석하여 코로나19 상황에서 식량안보 공동대응을 위하여 아세안과 한·중·일 간의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다.

□ 이번 회의는 아세안+3 특별 정상회의(4.14.)에 이어 13개국의 농림 장관들이 코로나19가 역내 식량안보에 미칠 영향과 공동대응 방안을 논의한 회의로,

- 국가별 농식품 분야 코로나19 영향과 대응 정책을 공유하고, 협력사업의 이행 실적을 확인하며, 아세안+3 국가 간 합의에 따른 의장보고서와 공동 기자회견문을 채택하기 위하여 개최되었다.
- 금년 의장국인 캄보디아의 벵 사콘(Veng Sakhon) 농림수산부 장관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식품공급망 차질과 식량안보 우려에 대해 회원국들이 협력하여 대응해줄 것을 요청하였고,
 - 회원국들은 중장기적으로 농식품 분야의 회복력과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마련해야할 필요성에 공감하며 아세안+3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하자는 데 뜻을 같이했다.
- 농식품부 이재욱 차관은 기조연설을 통해 한국과 아세안은 경제 협력 파트너이자 신뢰를 바탕으로 한 전략적 동반자 관계임을 강조하였다. 그간 아세안+3 농림장관회의를 통하여 역내 많은 협력과 교류가 이루어졌다고 평가하였다.
 - 이 차관은 코로나19 세계적 유행으로 식량안보에 대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어 어느 때보다 국제공조가 필요한 시기임을 강조하며 아세안과 한국, 중국, 일본 간의 협력 강화를 촉구하였다.
 - 또한, 인간의 질병 뿐만 아니라, 초국경 동물질병에 대한 국가 간 공동연구와 공동방역에도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 대표단은 이번 회의를 통해 아세안+3 비상 쌀 비축제도 (APTERR*)와 아세안+3 식량안보 정보시스템(AFSIS**)의 진행 상황, 그 밖에 「2016~2025 아세안+3 협력전략」에 따른 식량 및 농림 분야 협력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전략 등에 대하여 의견을 교환하였다.

* ASEAN Plus Three Emergency Rice Reserve : 아세안+한·중·일 간의 쌀 비축 물량을 사전에 약정·비축하고 비상시 약정물량을 판매·장기차관·무상 지원 하는 공공비축제도

** ASEAN Food Security Information System : 아세안 국가의 식량 정보를 수집 하여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보고서 발간, 인적자원 역량개발 프로젝트 추진

○ 우리나라는 아세안+3 비상 쌀 비축제도(APTERR)에 따라, '17년 부터 총 17천톤의 쌀을 지원하였다. 올해는 지진·태풍·화산 폭발 등 자연재해로 이재민이 발생한 필리핀에 재난구호용 쌀 1,950톤을 지원하였다. 이와는 별도로 지원한 코로나19 대비용 쌀 1,000톤은 APTERR 사무국을 통해 미얀마와 필리핀에 지원될 예정이다.

○ 이 밖에도 농업·농촌 정책 수립 지원, 산림협력, 역량강화, 동물질병 방역, 정보시스템 구축, 연구개발 협력 등 분야별 사업에 지속적인 지원을 약속하였다.

□ 끝으로, 이번 회의에 참석한 13개 회원국 장·차관들은 공동 기자회견문을 발표하고 제21차 아세안+3 농림장관회의를 인도네시아에서 개최하는 것에 합의하는 것으로 회의를 마무리하였다.

※ [참고] 공동 기자회견문(초안)

□ 이 차관은 이번 회의를 마무리하며 “아세안+3 농림장관회의를 통해 신남방 주요 국가들과의 농업분야 협력을 강화하여 식량 안보와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한편, 우리 농식품 수출과 농기업 진출의 기반을 공고히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제20차 아세안+3 농림장관회의(20thAMAF+3)**공동 기자회견문 (초안, '20.9.24 기준)**

2020년 10월 21일

1. 아세안과 중국, 일본, 대한민국의 농림장관들은 캄보디아 벵 사콘 (Veng Sakhon) 농림수산물부 장관을 의장으로 2020년 10월 21일 제20차 회의를 영상으로 개최하였다.
2. 우리는 코로나19의 전세계적 대유행 상황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역내 식량 공급 사슬의 와해 등 코로나19가 국민의 생명과 경제에 미치는 전례 없는 영향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했다. 우리는 지속가능한 식량원을 보장하고, 식량이 역내에서 자유롭게 이동하도록 보장할 것을 재확인했다. 우리는 아세안+3 비상 쌀 비축제(APTERR)와 식량안보 정보시스템(AFSIS)이 식량 가격의 지나친 변동성을 낮추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인정하며, 코로나19의 전세계적 대유행 시기에 적시성 있는 정확한 정보 제공 등으로 비상 쌀 비축분이 안정적으로 공급되도록 보장하기 위해 APTERR와 AFSIS를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기로 의견을 함께했다.
3. 우리는 식량안보, 지속가능한 산림관리, 기후변화 경감 및 적응 노력 강화, 동식물 위생 및 질병 관리, 역량 강화, 인적자원 개발, 정보 시스템 강화, 지식 네트워킹 및 교류, 농산물의 생산성·품질·시장성 향상 등 분야에서 아세안+3 협력전략(APTCS) 2016-2025를 이행해 나가는 데 있어 거둔 진전을 기쁘게 생각한다.

4. 우리는 아세안+3 비상 쌀 비축제(APTERR) 협정의 이행에서 거둔 성과를 높이 평가하며, APTERR 협정을 효과적으로 이행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다른 APTERR 당사국들도 신속하게 동 협정에 대한 비준서를 제출해줄 것을 촉구했다.
5. 우리는 식품, 농업, 산림 분야에 대한 역내 투자가 국제 기준에 부합하고, 지속가능하고 책임 있는 개발을 촉진하도록 보장하기 위한 아세안 가이드라인의 이행을 지지했다.
6. 우리는 열대거세미나방이 역내 농업과 식량안보에 미치는 심각한 위협에 주목하고, 아세안+3 국가가 열대거세미나방에 대한 아세안 행동계획 2020-2025 이행을 지지할 것을 독려했다.
7. 아세안 농림장관들은 중국, 일본, 한국에 지속적인 지원과 식품, 농업, 산림에 대한 아세안+3 협력 강화를 위한 약속에 사의를 표했다.
8. 우리는 2021년 인도네시아에서 열릴 제21차 회의에서 다시 만나기로 하였다.
9. 우리는 제20차 AMAF+3 회의를 준비해준 캄보디아 정부 측에 진심 어린 사의를 표했다.